

#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 인문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사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역할 바꾸기를 역설한다.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슨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심장\* 호머 배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이다.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 버리면, 나와 남 사이의 공존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학생들 말마따나 에밀리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라든가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얼굴에는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가 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얼굴이 다 제각각 다를 수 있는가. 100명은 고사하고, 그 똑같은 조합으로 크로마뇽인\* 이후 완벽하게 두 얼굴이 정확하게 똑같이 겹치는 예는 없었으리라.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속 모습은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큰골, 작은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뇌마다 제각각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나 굴곡, 주름 잡힌 정도가 달라서, 절대로 두 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라 갖는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에 작은 선이나 주름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억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 윌리엄 포크너 : 미국의 소설가로 주로 미국 남부 사회의 비극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 심장 : 일꾼들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우두머리.

\* 크로마뇽인 : 1868년 프랑스의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된 최초의 현생 인류.

출처 : 이송원 외, 『고등학교 문학』(출제진 재구성)

[나] 어느 누구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사람을 고문으로 죽게 하는 것이, 그것도 개종되지 않은 채로 죽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행동이 자비심이나 사랑이나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불이나 칼의 위협

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닌 도덕적 원칙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교리를 억지로 고백하게 하고 이런저런 예배에 순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중략)……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리고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도 아주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관용의 필연성과 관용이 갖고 있는 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사람이 있다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만심과 야망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자비한 열의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게는 아마도 좀처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결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댁니다.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열정에 휩싸일 때에는 그런 일에 칭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비기독교적인 잔인함으로 박해할 때 공공의 복지를 돌본다는 핑계와 법을 준수한다는 핑계를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처벌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출처 : 존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출제진 재구성)

[다]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인공 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 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은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인공 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 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 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 지능 시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출처 : 신유식 외, 『고등학교 국어』

[문제 2] [가]와 [다], [나]와 [다]가 결합한 체제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 두 체제에서 [라]를 수용하는 이유를 제시문에 근거하여 각각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보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근거를 자연권 사상에 두고 있다. 자연권 사상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생명,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즉 천부 인권(天賦人權)으로서의 권리이다. 이러한 자연권은 홉스, 로크 등 근대의 사회 계약론자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중략)……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사회적 가치로 삼으며,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와 제도에 반대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존립 목적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외에는 공권력과 법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법의 간섭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는 정치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 등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 그러나 개인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의무와 공동선에 무관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략)……

하지만 자유주의가 공동체와 공동선의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아실현을 이유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유주의에서 이상으로 삼는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인간이다. 이러한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선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공동선을 추구할 것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관용을 자신과 다른 견해나 행동을 승인하며, 자신의 견해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로 인식한다. 이때 관용은 다른 사람의 견해나 사상, 행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이를 참거나 허용한다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포함한다. 이는 불완전한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룰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의 태도가 무조건적인 관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유주의는 이른바 관용의 역설\*을 경계하기도 한다. 타인을 존중하고 관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까지 관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공동선(共同善) :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를 위한 선(善). 즉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익성으로 '공공선(公共善)'이라고도 한다.

\* 관용의 역설 :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결과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출제진 재구성)

[나] 19세기 이후 자본주의는 대규모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대다수 시민을 생산에 대한 지배로부터 배제하는 대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보다 소유의 권리를 우선한다. 재산권이나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임금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고 계급 간 투쟁을 격화시켰다. 세상에는 모두가 상당한 생활을 향유할 만한 자원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는 세계 인구의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파멸적 위기와 대량 실업이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사회 불안과 빈부의 뚜렷한 격차를 만들어 냈다.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수탈을 복원하여 국가 간, 인종 간 분쟁을 더욱 심화하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강력한 자본가 집단이 과거의 야만성을 자극하여 파시즘이나 나

치증의 모습으로 고개 들도록 조장하였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병폐에 대항한 운동으로 유럽에서 발생하였다. 자본주의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임금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초창기 사회주의는 이들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전문직 및 사무직 노동자, 농어민, 수공업자와 소매상, 예술가와 과학자 등 점점 더 많은 시민에게 인식되었다.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을 소유·통제하는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인민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 경제 권력을 인민 전체의 손에 넘기고 자유인이 평등하게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한 사회주의의 목표이다.

……(중략)……

지금 많은 나라에서 방임적 자본주의는, 국가의 간섭과 집단적 소유를 통해 사적 자본가의 영역을 제한하는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더 많은 인민이 계획의 필요성에 동의해 가고 있다. 사회 보장, 자유 노동조합주의, 산업 민주주의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같은 발전은 대부분 사회주의와 노동조합 운동가에 의한 오랜 투쟁의 결과이다. 사회주의가 강한 곳 어디에서든 새로운 사회 질서의 창조를 향한 중요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출처 : 『프랑크푸르트 선언』(출제진 재구성)

**[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분쟁을 수습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빈곤하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무시되지 않습니다. ……(중략)…… 아테네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일에만 대체로 전념하는 사람들도 정치 일반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테네인들은 정책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거나 적절한 토의에 회부합니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나 정치적 지배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라고 보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한다. 국민 주권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우선,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한과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헌법, 법률 및 정책과 관련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는 누구도 차별 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번갈아 가며 지배하고 지배 받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민이 권력의 구성과 집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치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때 국민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라]** 1784년 영국 맨체스터 근처 면화 공장의 아동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열병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열병은 아동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1802년 세계 최초의 노동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제\*의 건강과 풍속에 관한 법(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시 도제의 지위에 있었던 아동 노동자들의 하루 근로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

한하고, 야간 노동을 금지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아동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숙소와 의복을 지급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비참한 아동 노동자들을 동정하는 여론에서 비롯된 노동법은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모든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오늘날의 노동법 제도로 발전하였다.

\* 도제 :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밑에서 일하면서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배우는 직공을 말한다.

출처 : 김왕근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근로 조건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를 당사자에게만 맡긴다면 근로 조건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우리 헌법에서는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 삼권을 보장하여 사용자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출처 : 서범석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노동법은 사회법\*의 한 종류로서 근로 관계를 규율한다. 국가는 노동법을 근거로 근로 관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근로 조건은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당한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 임금과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도록 강제한다.

노동법에는 근로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 기준법, 사용자가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제하는 최저 임금법, 근로자의 단체 결성과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이 있다.

\* 사회법 : 사회법은 사적 영역에 대한 공적 규제로서 ‘사적 자치 원칙’의 수정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사회법은 크게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환경법 등으로 분류된다.

출처 : 김왕근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문제 3] [가], [나],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고, [라]를 모두 활용하여 [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 수 변화>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인 가구 비율 (%)	6.9	9.0	12.7	15.5	20.0	23.9	27.2
평균 가구원 수 (명)	4.1	3.7	3.3	3.1	2.9	2.7	2.5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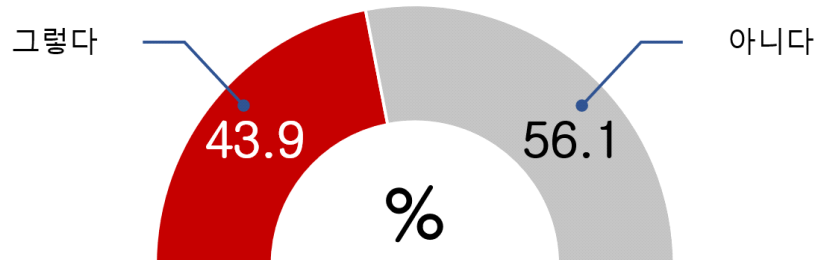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출산율 (명)	1.30	1.19	1.21	1.24	1.17	1.05	0.96
출생아 수 (만 명)	48.5	43.7	43.5	43.8	40.6	35.8	32.5

\* 합계 출산율 :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출처 : 『서울경제』, 2019. 1. 20.

<20~30대 미혼 성인 남녀 877명 설문 조사 결과>

Q. 결혼 후 딩크족\* 생활을 하실 건가요?



\* 딩크족 : DINK(Double Income No Kids)+족.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

출처 : 『중앙일보』, 2019. 4. 2.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추이>

연도	2012	2015	2018	2019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만 가구)	359	457	511	591
전체 가구 수 대비 비율 (%)	17.9	21.8	23.7	26.4

출처 : 『리얼캐스트』, 2020. 12. 9.

[나] <분야별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	산업
동물 복지	동물 병원, 동물 장례, 반려동물 카페, 동물 미용실, 휴펫시터
교육	반려동물 관리사·스타일리스트 학원, 반려동물 훈련소
제조·생산	반려동물 분양, 반려동물 사료, 케어용품, 미용 용품, 가구 등

출처 : 『무역정보블로그』, 2017. 5. 26.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전망>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2027
시장 규모 (억 원)	17000	21400	23300	27000	30000	33000		60000

출처 : 『더벨』, 2021. 2. 15.

[다] 펫팸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지만, 정작 지역 내에서 반려동물을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웃 주민의 반려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다니는 모습은 비반려인들의 안전에 위험 요소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목줄 길이 제한 ▲공원 내 배설물 미처리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원 면적과 개수에 비해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높인다고 해도, 적발을 제때 하지 못해 사실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예상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일부 반려인과 개를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에게서 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구청은 반려견 놀이터를 설립하기 위한 공간에 근린공원이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퇴근 후 반려견과 함께 생태 공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A 씨는 “개파라치, 목줄 길이 제한 등 반려견에 대한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반려견을 공원에 데리고 나가면 지나가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느낀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반려견이랑 집에만 있어야 하느냐?”라며 “안전사고 등으로 반려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반려견과 함께 소통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견주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들이 서로 방해 받지 않도록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B 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목줄, 배변 등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면서 “따뜻해지면 점점 더 많은 반려견들이 나올 텐데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반려견 놀이터와 같이 한 구역을 지정해 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 반려동물을 풀어놓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우선 “생태 공원의 경우 그곳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 소유물이어서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 반려견 전용 공간을 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계셔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쉽지가 않다. 서울 시내 자치구 중 ○○구의 경우 반려견 놀이터 공간을 마련했지만, 주민 반대 여론이 심해 다시 없애는 사례 등이 있었다.”라며 “일단 우리 구에는 현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의 설치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및 주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펫팸족 :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family)가 합쳐진 조어.

출처 : 『서울로컬뉴스』, 2018. 3. 20.(출제진 재구성)

[라] 같은 사회 현상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사회 구조나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비둘기 문제를 예로 들면,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는 현재 도심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비둘기를 그저 평화의 상징으로만 여기고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비둘기를 유해 동물로만 여겨 무조건 퇴치하려고 한다면 도시 생태계가 변화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경과, 지역적 특성, 관련 정책이나 제도,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즉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할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출처 : 육근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사회 통합은 한 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결속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여 평등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실현하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 통합은 경제 성장과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의식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확립하여 소외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과 신뢰를 구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공정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토론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양보와 관용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사회 통합으로 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김국현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출제진 재구성)

인간은 서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한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의미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협력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열려 있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소통은 결정된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공유의 과정이다.

담론은 언어로 표현되는 인간의 모든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로, 현실에서 전개되는 각종 사건과 행위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틀을 제공한다. 나아가 담론은 해석의 틀을 토대로 사회 구성원에게 특정한 인식과 가치관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을 재구성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출처 : 김국현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부의 경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하며, 재정 활동은 세입과 세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입은 조세 및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국방, 복지,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등을 달성하기 위해 재원을 지출하는 활동이다. 정부가 재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하며,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활동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세금은 납부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이 있다.

출처 : 박형준 외, 『고등학교 경제』

경제적 유인이란 금전적 보상이나 벌금과 같이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행동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유인이 주어진다면 그 행동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장 경제에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은 가격, 임금, 이윤, 보조금,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이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들은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 또는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